

경찰, 여수 폭발사고 국과수 감정 결과 발표

“가스제거 부실... 용접 불씨튀어 폭발”

대림산업 관리 소홀... 처벌 대상자 늘 듯

17명의 사상자를 낸 여수 대림산업 화학공장 폭발사고가 저장탑(사일로·silo) 안에 있던 가연성 가스에 불이 붙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림산업측이 저장탑 내부의 잔류 가스를 없애기 위해 실시했다는 퍼지 작업(가스 청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면서 결국 ‘허술한 안전 관리’가 빚어낸 ‘인재(人災)’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형사 처벌 대상자도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수경찰은 3일 대림산업 폭발사고는 용접 과정에서 발생한 불씨가 사일로(silo·저장고) 내부에 분포된 가연성 가스에 옮겨 불이 튀면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6개 사일로 중 사고 사일로인 A·B·D 내부에 플리에틸렌 분말이 다량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맨홀 설치에 관한 절단작업

과정에서 달린 조각이 분말에 닿으면서 발생한 부탄 등 가연성 가스가 저장탑 내부에 남아있던 상황에서 용접 불씨가 가스에 옮겨 불이 폭발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부탄, 펜텐 등은 유기화합물로 끓는점이 낮아 쉽게 연소 또는 폭발한다. 경찰은 이후 사일로 D안에서 발생한 폭발로 생긴 불이 주변 천막 등에 옮겨 불이 튀면서 사일로 B 안에 있던 가스도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같은 감식 결과를 토대로 대림산업측이 위험물을 다루면서 용접 전 퍼지(치환)작업이 소홀

했다는데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여태껏 확보한 관계자 진술과 압수수색 자료를 종합해 형사 처벌 대상자를 가려내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안팎에서는 현장 안전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면서 17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로 이어졌다는 점을 감안, 형사 처벌 대상자만 10여명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흘러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달 14일 오후 8시 50분께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대림산업 고밀도 플리에틸렌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나 6명이 숨지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학교폭력 반대’ 퍼포먼스 3일 광주시 북구 일곡동 일동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학교폭력 예방 플래시 몹’(flash mob) 행사에 참가한 학생 1000명·경찰관 100명이 ‘학교폭력 반대’라는 문구를 만드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청소년 범죄, 갈수록 잔인·영악해진다

10대 2명, 인터넷 채팅 여중생 번갈아 성폭행
10대 6명, 전국 돌며 8000만원 상당 금품 훔쳐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잔인해지고 조직화되고 있다. 범행 수법이 어른 뺨칠 정도다. 광주북부경찰은 3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을 돌아가며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모(18·고교 3년)군 등 10대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군 등은 지난해 4월 25일 새벽 5시에 광주시 북구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 C(14)양을 번갈

아 성폭행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C양을 집으로 유인한 뒤 함께 술을 마시다 취해 쓰러진 C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순천경찰은 순천을 비롯, 전국을 돌며 54개의 상가에서 수천만원의 금품을 훔친 최모(16)군 등 10대 6명을 붙잡았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순천=김은경기자 ejkim@

경찰에 따르면 이들 가출청소년들은 지난달 30일 새벽 2시에 남원시 하정동 이모(여·52)씨의 옷가게에 침입, 100만원 상당의 현금·옷 등을 몰래 가져가는 등 전국 50여개 상가에서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전과 1범~7범인 이들은 순천·여수·경남 김해·경북 구미·대전·충남 C양을 집으로 유인한 뒤 함께 술을 마시다 취해 쓰러진 C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순천경찰은 순천을 비롯, 전국을 돌며 54개의 상가에서 수천만원의 금품을 훔친 최모(16)군 등 10대 6명을 붙잡았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순천=김은경기자 ejkim@

“생리중 수영장 이용못해... 요금 깎아달라”

20대 여성, 감면 조례 제정 광주 동구청장에 공개 건의

“생리기간 중 수영장 이용을 못하는 만큼 이용료를 깎아주세요.” 광주의 20대 여성이 생리기간 중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기간 만큼의 이용료 감면 또는 이용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노회용 동구청장에 공개 건의했다. 동구 자산동에 사는 29살 직장 여성은 지난달 25일 동구 홈페이지 ‘구청장에 바란다’ 코너에 ‘동구체육센터 여성회원 요금의 불합리함에 대해 건의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여성은 “최근 여성 생리기간 수영장 이용료 감면 및 기간연장과 관련해 동구 국민체육센터에 문의한 적이 있는데, 동구 조례가 우선 개정돼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이 담긴 체육센터 측 답변을 받았다”면서 “청소년부터 55세

이하 여성에겐 매일 생리기간이 있는데, 남·여 구분 없이 동일한 이용료를 내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썼다. 또 “생리는 여성들이 선택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여성만 책임져야 하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 수원·청주·대전·천안 등 전국 20개 지자체에선 이 조례를 제정해 이미 시행 중”이라고도 적었다. 아울러 “이러한 부당한 일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집단민원을 제기할 것”이라며 “여성들의 목소리를 담아 (청장님에게) 건의하는 만큼,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해 뜻 있는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경고(?)도 덧붙였다. 노회용 동구청장은 “상당히 멀리 있는 얘기로, 여성 인권보호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현재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범서방과 행동대장 납치 폭력배 검거

3명 구속 2명 추적중

폭력조직 범서방과 행동대장을 납치,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조직 폭력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은 범서방과 행동대장 나모(48)씨를 납치해 폭행한 혐의(강도상해) 등으로 강모(29)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범행을 주도한 조모(54)씨와 정모(47)씨 등을 추적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일당은 지난달 3일 오후 8시에 강남의 한 카페로 나씨를 유인해 폭행한 다음 쇠파슬과 철타이프 등으로 묶고 현금 100만원

과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나씨에게 2억원의 빚을 탕감할 목적으로 나씨를 조씨의 고창시골집으로 납치해 장기간 감금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나씨는 그날 밤 경기도 기흥휴게소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탈출,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두 달 전 사망한 범서방과 두목 김태춘의 후계자로 거론된 인물이다. 조씨와 정씨는 각각 호남, 영남 폭력조직의 부두목으로 강제 등 추종세력 4명을 범행에 가담해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영광원전 한마음공원 운영비 빼돌려

1명 구속 3명 입건

영광경찰은 3일 원전 피해 보상 차원에서 조성된 영광원전 한마음공원의 운영비를 횡령한 혐의(횡령)로 한 마음공원관리협회 경리 직원 박모(여·34)씨를 구속하고 횡령모(53)씨 관리직 직원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법인 계좌에서 현금을 무단 인출, 1억

3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 등은 직원들의 수당을 빼돌리거나 인건비를 부풀려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방법으로 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마음공원은 지난 2002년 원전 이미지 개선을 위해 영광군 흥농읍 영광원전 앞 33만㎡ 부지에 조성됐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문재인 비방 광고 게재 보수 논객 지만원 기소

서울중앙지법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민주당 후보의 슬로건을 비방하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보수논객 지만원(7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지씨는 지난해 12월10일 자 일간지 광고를 통해 문 후보의 대선 슬로건인 ‘사람이 먼저다’가 주체사상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차비 떨어지자 ‘강도 당했다’ 허위신고

○고양인 강원도 갈 여비를 마련하기 위해 ‘강도를 당했다’며 허위 신고를 한 20대 여 행객이 경찰에 잡혔다. ○나주경찰에 따르면 이모(20)씨는 3일 새벽 2시10분께 112에 ‘20대 남성 2명이 얼굴과 허벅지 등을 구타하고 현금 7만원과 체크카드를 빼앗아 갔다’고 거짓 신고를 했다는 것. ○이씨는 폭행당한 흔적이 없고 강도에게 빼앗긴다는 체크카드가 이미 3개월 전 분실신고된 점을 의심해 중증 추궁하는 경찰에 “나주에서 돈을 다 써버려 돌아갈 방법을 찾다 강도 피해 신고를 하면 차비 등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다”고 실투. /나주=정철형기자 chung@

<p>롯데제이티비는 롯데그룹의 Global 여행 기업입니다.</p> <p>롯데제이티비</p> <p>www.LOTTEJTB.com</p>	<p>“여행문의”</p> <p>1577-6511</p>	<p>*롯데그룹이 운영하는 믿을수있는 유일 여행사*</p>	<p>이달의 우수대리점</p> <p>금남로점 062) 228-6644</p>	<p>대리점을 모집합니다.</p> <p>문의 전화 062) 228-6644</p>	
<p>“장가계 vs 터키”</p> <p>장가계 천문산/원가계 4/5일</p> <p>★무안 - 장가계 직항 전세기!</p> <p>무안 출발 859,000 원부터</p> <p>4/1~5/20 (월,금) 출발</p>	<p>“동서양의 만남”</p> <p>터키 안전일주 8일</p> <p>★국내선 2회 항공이동 포함~!</p> <p>광주 출발 1,849,000 원부터</p> <p>5/6,14,17,20,27,31</p> <p>5/14,17,20 (출발확정)</p>	<p>“황금연휴특선! 일본 으로~!”</p> <p>“전세기 특선” 오사카 3일</p> <p>★무안 - 오사카 전세기편!</p> <p>무안 출발 1,290,000 원부터</p> <p>5/17 ★단하루~!</p>	<p>“일본”</p> <p>북큐슈 온천 여행 4일</p> <p>★광주 - 부산항 수송비용 포함!</p> <p>광주 출발 369,000 원부터</p> <p>5/15 ★단하루~!</p>	<p>“고객감사” 무원상당!</p> <p>LOTTE JB 국내 여행*</p> <p>“화산 힐링푸드페스티벌”</p> <p>●출발일: 5/16~ 5/19까지!</p>	
<p>유럽</p> <p>2/23(토) 롯데호텔싱apore 방영상품</p> <p>동유럽 4개국 9일</p> <p>하늘위의 로망 A380 2,690,000 원부터</p> <p>4/10(목) 16,17,20(목)~</p> <p>4/2(목) 27,30(목) 5/7(목) 15(목) 2(목)~</p>	<p>동남아</p> <p>공연소핑 3/29 방영</p> <p>방콕 파타야 5일 499,000 원부터</p> <p>4/5,6,7,8,9,10,11,12,13,14,15,16,17,18,19,20~</p>	<p>일본/괘사이판</p> <p>5월~6월/황금연휴특선!</p> <p>5/17(토) 마츠야마 나루코 온천 3일 999,000원</p> <p>5/17(토) 동경 하코네 (1일자유) 3일 1,249,000원</p>	<p>중국</p> <p>북경 만리장성 4일 299,000 원부터</p> <p>상해 향주 서당 메리트숙박* 4일 299,000 원부터</p>	<p>미주/남태평양</p> <p>CJ 오쇼핑 (7/8특전/7/8특사)</p> <p>미동부 캐나다/나미아카리/캐릭/몬트레이 10일 2,490,000 원부터</p>	<p>SIT</p> <p>54층 그린캐피탈/비비 전부 포함 54층</p> <p>석가탄신일 연휴 대련특급 골프 3일 1,099,000 원부터</p>

●광주권: 롯데백화점 광주점, 롯데마트 첨단, 롯데마트 상무, 롯데마트 월드컵, 롯데마트 수완, 북구점, گیا점, 백운점, 구시청점, 양동점, 상무역점, 문화전당점, 서광주점, 매월점, 광산점, 능성점 ●전남권: 롯데마트 여수, 롯데마트 여천, 순천점, 목포점, 광양점